

➤ Advice : 4

학원강의 활용법

종합반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0. 시작하며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환경법이 원점수 면과락이라는 사실을 알게되고는 정말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그만큼 다른 과목에서 많이 만회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면을 가득 채워넣은 것 때문에 과락만큼은 면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가혹한 시험입니다. 다른 고시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 난이도가 낮다, 너무 많이 뽑는다. 온갖 부정적인 말이 붙어있지만, 변호사시험을 직접 보는 수험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절반을 쳐내는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래도 우리는 합격해야합니다. 그냥 합격을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이라도 좋으니까 합격해내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1. 할 수 있을까?

11회 변호사시험. 611점. 객관식 60개. 제 기억으로 제 뒤에는 100명이 안되는 사람이 있었고, 아마도 그 100명이 안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중간에 시험을 포기했거나 통백을 낸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받은 611점은 중도포기로 나온 점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시험에 응시하고 난 뒤의 점수입니다. 변호사시험 당일 긴장해서 시험을 못본것이라던가 단순히 공부방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변명이 통할 수준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그만큼 저는 무지했고 무식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시를 보기로 결정하고 난 뒤 에프터스쿨을 알게되어 합격수기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700점대 점수를 받은 누군가가 1년 공부로 합격할 수 있을지 묻는 글에 대부분 1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길게 2년을 보고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받은 점수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수기를 찾아봐도 600점대에서 8개월만에 합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꽤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웃기게도 애초에 600점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600점대에서 1년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1년으로는 안된다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기를 꼭 쓰고 싶었습니다.

8개월의 준비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쓴 이 글은 로스쿨 3년의 기간동안 공부를 단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게 될까?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정말로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2. 학원에 대하여

저는 한림윌비스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이랑 가깝다.

별 고민도 안했습니다. 상담도 제대로 안받았고요. 상담받아봐야 제 점수로 무슨 얘기를 들겠습니까. 그냥 시작하는 수 밖에는요.

그 당시 제 수준은 문자 그대로 백지였습니다. 명의신탁이나 관법지 같은 개념은 말그대로 용어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형사기록과 공기록은 작성방법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대로 공부했습니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시험보고, 반복하고.

관리반의 일정은 10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11시까지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8개월동안 하루에 1시간씩 더 하면 실제 공부기간으로는 3주 이상을 벌 수 있는 시간이더군요. 11시까지 매일 앉아있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혼자서 풀었습니다. 객관식 77개였던가요. 60개보다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8월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치뤘습니다. 객관식 88개였던 것 같네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10월 모의고사 역시 학원에서 치뤘습니다. 객관식 95개. 작년 10모는 객관식이 유난히 어려웠고, 객평이 85개 근처였습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남훈 교수님, 이재상 교수님, 선동주 교수님, 정주형 교수님, 서창교 교수님, 김기환 변호사님. 정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방향을 설정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합격하기 충분하다고, 알려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격에 필요한 것은 전부 알려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다른 학원이 얼마나 잘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림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강의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대로 하십시오. 하기 싫고, 대체해도 될것 같고, 나중에 해도 될것 같은 것을 해내는 것이 합격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업도 혼자 봐도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룹스터디는 복습의 효과를 2배로 올려줍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놀랍게도 변모 기출문제를 일부 변형하고 순서를 바꿔서 중요한 순서로 모아놓은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창작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고, 알아야할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진모는 필요없다고 하고, 누군가는 객관식 강의를 필요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약한 마음을 흔들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역꾸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이것만큼은 달성하자

제가 시험 전까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 변시 객 기출 5개년 5회독, 맞췄던 문제 포함해서 풀세트로 전부 시간 맞춰서 풀기.
- 하루에 잠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은 선택과목 공부하기
- 하루에 1시간 이상 무조건 기록형 공부하기
- 당해 6,8,10 모의고사는 무조건 숙달하기
- 최판 각 과목별로 10회독

8모 이후로 변시 전까지 매일같이 반복했던 루틴이고, 결국 지켜낸 목표입니다.

그 중 객관식 5개년 풀이는 로스쿨 동기 형으로부터 듣게 된 방법입니다.

-매일 한 과목씩 회차별로 풀고 미련없이 버려라

객관식 5개년을 직접 푸는 것은 정말 하기 싫고 시간도 오래걸리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는 작업은 하루에 무조건 1시간. 민법은 하루에 3시간, 공법과 형법은 하루에 2시간. 검토 시간이 초과될것 같으면 그냥 답만 보고 판례만 익혔습니다.

많은 수기들을 보며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만 객관식 회독수를 깡으로 늘린 사람 중에 불합격 한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은 누구나 하기 싫어하고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할 수록 당연히 알고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잘못알고 있던 것이고 모호한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겪으실 겁니다.

부디 객관식 5회독만큼은 반드시 해봐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게 실력이 늘어납니다.

4. 누구나 힘든 시기는 찾아온다.

위에서 쓴 바에 따르면 마치 8개월동안 미친놈처럼 잠도 줄여가며 공부한 사람 같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미친놈처럼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아 자주 지각했고, 하루를 통으로 날려서 주말에 복습 영상으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8모 이후와 10모 이후에는 슬럼프가 찾아와서 2-3주 가량 씩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울한 시기를 겪게 되면서 하루에 4-5시간씩 핸드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를 불러 저녁 9시, 10시 쯤에 만나 맥주 한잔을 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미칠것 같은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틀어놓고 잠들고는 했습니다. 롤 게임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자기 전에 보기도 하며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느 날은 강의를 듣다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마스크가 있어서 망정이지 눈에 눈물 잔뜩 고인 상태로 억지로 눈 뜨고 수업 듣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하루는 갑자기 멘탈이 무너져서 어머니께 전화로 못해먹겠다고, 8개월로는 도저히 못따라갈 양이라고 영영 울면서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만큼 힘든 시기는 끊임 없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울해도 매일같이 지킨 것이 위에 적은 루틴입니다.

변시 객기출 1세트, 최판 1시간, 기록 1시간.

이 3가지 만큼은 아무리 미친듯이 우울하고,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날이더라도 반드시 해냈습니다. 오늘을 통으로 멍때리면서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고 날려버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틴 덕분인지 슬럼프 기간에도 공부를 전혀 놓지는 않았고, 비교적 빠르게 슬럼프를 극복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특별히 더 힘든 기간이 문득 찾아올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 얼마나 마음이 덜 무너지고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순공시간 자체가 아니라 꾸준하게 나아갈 힘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공시간따위 재볼까 하던날 바로 버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타이머 누르는걸 자꾸 까먹어서 오히려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마련하세요.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분명히 힘이 될겁니다.

5. 마무리

제가 위에 적은 공부 방법이나, 학원, 힐링 방법들은 단순히 예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책을 봤고 문제집을 풀었는지 역시 단순한 하나의 공부 방법에 불과합니다. 많은 합격자들은 저마다의 공부방법으로 합격했고 각자의 공부방법이 옳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제가 한 방법대로 공부하여서 합격한 것이어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점수가 정말 많이 낮은 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611점이라는 점수보다는 높으실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적어도 저보다 앞선 위치에서 달릴 수 있으신거 아니겠습니까.

우습게 들리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사례 하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변시 꼴등이 4월말부터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합격을 이루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